

사용자의 입장을 잘 이해하고 누구라도 공평을 제1로 하여 사용자로서 최대 奉公하는 것에 염두에 두어 어떠한 사정에 의해서라도 몸을 그르치지 않도록 하여 봉공에 빠지는 일이 절대로 없도록 만사 세심하게 주의하여 취급하는 것으로 한다¹⁾”라고 하였다. 이것은 위안부로 연행한 여성들에 대해 감정을 엄금하고 성욕 배출 대상으로만 국한시키려는 분명한 의도를 읽을 수 있고 여성에 대한 비하, 노예화의 수준을 보여준다.

김군자 부분에서든 국가책임부분에서든 아래의 자료소각 부분을 기술하면 좋을 듯.

-관동군 주둔지역에 동원된 피해여성의 수는 남한 경우만하여 신고 여성의 1/4-1/3에 달한다. 그러나 이에 대한 직접적인 군대자료는 거의 발견되지 않았다. 이것은 1939-42년까지 관동군참모본부 제3과 병참반에서 근무하였던 무라카미 사다오의 진술과 관련있다. 그에 의하면 관동군의 위안부 동원을 기획한 것은 하라젠시로(原善四朗)였고 조선인 위안부를 3000명 동원하였고 패전시에 비밀스럽게 보관하던 위안부 배치도 등을 처분하였다고 한다. 이러한 이유로 범죄행위를 확인할 자료가 거의 나오지 않았다.

:자료는 무라카미가 센다 가코우에게 보낸 편지

4. 일제 지배하 여성의 처지

일제는 일본의 호주제를 조선에 이식하여 전통적인 조선의 가족제도를 재편함으로써 호주를 매개로 가족에 대한 국가의 통제체제를 강화하였다. 한편, 조선여성의 전통적인 재산상속권을 부정하고 법적인 행위능력을 박탈하였다. 일제는 철저하게 불평등한 지위에 놓인 조선여성에게 일제의 통치와 가부장적 사회체제에 순응하도록 요구하였다.

일제 강점 이후 수탈로 인한 조선 민족의 급격한 사회경제적 붕괴는 수많은 여성을 가정과 농촌에서 벗어나 노동자 등 직업을 찾아 나서게 하였다. 그러나 강점 상태에서 고용기회는 극도로 제한되어 있었고 공장노동자는 일본인 남성의 1/4, 일본인 여성의 1/2밖에 안 되는 저임금 상태에 있었다. 이때 여성 노동의 대가는 생존하기에도 힘든 수준이었다.

이러한 일제 강점상태와 더불어 일제가 조선에 도입한 공창제도가 여성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다. 공창제도는 원래 조선 개항이후 일제가 일본인 거류지에 도입한 것이었다. 조선이 전쟁터가 된 청일전쟁·러일전쟁을 거치면서, 일본인 유곽은 일본거류지에 일반적으로 설치되었다. 강점기에 들어와서 일제는 전 조선으로 확대시켰다.

공창이나 매춘업에 여성들이 들어서게 되는 동기는 대부분 인신매매나 사기와 협박 등이 많았다. 일제하의 공창제도는 국가가 공공연히 부모나 남편 등 친족에 의한 여성 매매를 인정하였고, 이것은 인신매매를 합법화한 것이었다. 이것은 또 일반 사기에 의한 인신매매를 조장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제 말기 매춘업에 대한 통제와 함께 군'위안부' 동원이 조선에서 전면적으로 시행되기에 이르면, 공창이나 여타 매춘업

1)浦添市사편집위원회, 浦添市史(1984년 발행) 92/문1

에 종사하였던 여성들이 누구보다도 우선적인 동원대상이 되었을 것이다.

게다가 일제 말기 조선여성 노동력 동원은 학교를 제외하고는 부·군·도·읍·면(府郡島邑面)의 일반행정 및 경찰조직을 이용하고 있었다. 공장 노동력 동원은 여전히 각 지역을 돌면서 모집하는 형태를 취한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이때 말단 행정 관련자와 경찰이 지원하였다. 물론 제한적으로 일본에서와 마찬가지로 각종 직업소개소가 관여하고 있었다. 이러한 공장노동자의 모집형태는 바로 일제말기 군위안부를 취업 사기 등 방식으로 동원해 갈 때의 형태와 동일하였다.

군위안소, 군위안부제도는 공창제도와 기존 매춘 구조와 분명 관련이 깊다. 왜냐하면 군위안부제도를 도입하게 된 이유는 공창제도를 만든 의도와 깊게 연결되어 있고 또 군위안소를 운영하는 방침도 그것에 영향을 받은 바 크기 때문이다. 특히 전쟁기가 되면 공창이 군위안부제도 내로 편입되거나 중첩되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관·군이 군위안소 관리·감독·운영 등에 직접 개입하고 있다는 점에서 군위안부와 공창은 차이가 있었다.

4. 일제말기 조선 여성의 상황

일제하 조선 여성이 처한 상황은 당시 한국사회의 정치 경제적인 전반적 상황의 이해 위에서, 가족, 교육, 노동의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조선은 일본의 강점하에서 한국인에게 보통선거권, 나아가 일반적인 정치 참여 같은 것은 없었다. 이것은 여성에게도 결정적으로 중요하여서, 일본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은 여성 참정권 운동의 역사를 가질 수가 없었다. 주권 상실의 상황에서 여성들은 주로 한국 민족의 주권회복을 위한 민족주의 및 사회주의 운동에 참여하였다. 예를 들어, 3. 1운동에서의 여성은 적극적 참여하였으며, 이후 근우회와 같은 여성운동 조직이 결성되었다. 하지만, 1930-40년대에 들어오면서, 일제는 한국인에 의한 어떠한 민족해방운동도 철저히 탄압하여 한국인의 '목소리'는 질식되었고(suffocate), 이에 따라 한국인 여성이 한국인으로서, 여성으로서 주권을 외칠 수 있는 사회 운동의 공간은 압살되었다.

1929년 이후의 세계 대공황은 한국의 경제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치었다. 이러한 경제 공황이 일본의 제국주의 전쟁들 - 중국 대륙 침략전쟁(Japanese Imperialist War in China), 태평양 전쟁, 제 2차 세계대전 -과 중첩되면서, 전쟁수행을 위한 '병참기지'였던 조선의 경제는 극도로 고갈되었다. 특히, 쌀 중심의 식민지 단작농 (번역자 참조: 한 가지 종류로만 농사짓는 것)에서 미국가의 폭락은 농촌 경제를 파탄할대로 파탄하게 하였으며, 일제의 전쟁수행을 위한 곡식의 착취는 한국인 전반을 기아의 상태에 몰아넣었다.

이러한 경제적 상태가 여성에게 의미하는 바는 매우 크다. 농촌 여성의 경우, 생계를 돕기 위해 높은 강도의 노동을 해야 했다. '농촌 여자는 소보다도 쓸모 있고 소보다도 힘세다'라는 당시의 말이 이를 나타낸다. 여성들은 농사일뿐만 아니라, 모든 가사일에도 맡고, 늘 가족의 끼니 걱정에서 시달렸음을 알 수 있다. 여성들은 쑥, 감자, 조와 콩깍묵 등으로 연명하고 그것도 없으면, 풀, 나뭇잎, 나무 껍데기를 발라내어 가족을 먹여야 하는 상황에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미혼의 여성 가족원의 경우는 가족의 생계를 돕기 위하여, 또한 식구수를 줄이기 위하여 제일 먼저 일자리를 찾아 떠나야 하는 사람이었다. 여성을 덜 중요한 가족으로 위치시키는(located) 가부장적 가족제도하에서 이것은 더욱 그러하다.

여기서 일제시대의 가족제도에서 여성의 지위를 살펴보자. 일제시기, 기존의(pre-existing) 가부장제와 일제가 도입한 호주제도(family-head system)와 호적제도(family registration system)가 서로 결합되면서, 여성이란 단지 '부속적인' 가족원이라는 점이 법적으로 더욱 공고화된다. 또한 여성은 법적으로 무능력자(Incompetent)로서, 모든 법적 행위에 보호자(patron)를 필요로 하였다. 일본의 여성과 같이 정치참여 운동이 가능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러한 가족제도는 한국의 여성을 가족에 묶어두고(bound to; confined to) 사회적으로 낮은 신분에 위치시켰다.

일제시기의 한국여성의 교육은 부진하였다. 1919년 보통학교(초등학교)의 한국인 여성의 진학율은 0.7%(남자의 진학율은 5.3%)에 불과하였다. 1930년 여성 진학율은 5.7%로 증가하였으나, 여전히 낮은 수준이었다. 특히 고등교육의 기회가 매우 제한되어 1931년에도 여자고등보통학교(중학교)에 다니는 여학생 수는 5천명을 넘지 않았다. 또한 고등

교육을 받은 당시의 '신여성'이라고 할지라도, 앞에서 말한 조선사회의 경제 정치적 상황으로 인하여 취업기회를 얻는 것은 매우 어려웠다. 적극적 사회참여의 길이 봉쇄된 식민주의 군국주의 지배하에서 고등교육을 받은 여성조차도, 많은 경우, 결혼과 가족 속에 매몰되어 버렸다.

공항과 식민지 강점 하의 경제적 상황 아래에서 여성의 고용기회는 극도로 제한되었다. 일제는 경공업 중심의 노동집약적 산업을 한국에 이식하였는데, 여기에 여성노동자의 역할이 중요하였다. 예컨대, 1934년 방직공업에 여성노동자의 비율은 전체 노동자의 80-90%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 중에는 12-15세의 유년 여공이 많았다. 또한, 한국인 여성 노동자의 경우, 주로 하루 14-15시간의 장기 노동의가로 받는 평균 임금은 일본인 남성의 1/4, 일본인 여성의 1/2밖에 안 되는 저임금 상태에 있었다. 다른 한편, 이러한 공항과 전쟁상태에 따른 조선 사회의 경제적 도덕적 피폐는 많은 조선 여성을 매춘여성으로 만들기도 하였다. 이것은 일제가 제도화한 '공창제도'가 인신매매 등과 같은 여성매매를 용인한 결과이기도 하다.

요컨대, 당시의 한국 여성이 처한 극도의 경제적 빈곤과 여성비하 속에서 사기와 폭력에 의한 '위안부' 연행이 이루어 질 수 있었고, 조선 사회의 철저한 정치적 군사적 지배와 정보 통제 속에서 체계적(systematic) '위안부' 연행이 가능하였던 것이다.

Situation of Korean Women under the Japanese Domination

Situation of Korean Women in the Last Days of the Japanese Colonial Rule

In relation to the women's position under the Japanese colonial rule, the Japanese colonial government reorganized the Choson family system by implanting the Japanese family registration system, and used the system as a medium for government to control each family unit, to deny the Choson women of the traditional right of inheritance and to deprive them of their legal capacity. Moreover, the Japanese colonial government demanded that Choson women, suffering utter inequality, conform to the colonial rule and the social system of patriarchy. In the time of war, in particular, the colonial government not only exploited the women's labor but also forced them to contribute to the war effort by childbearing to replenish the military and labor force.

In addition to schools, the Japanese colonial government utilized all levels of local administrative organs (province, county, district, township, etc.) and the police force to mobilize the female labor force. For the mobilization of labor force for factories, the common practice was to go to each district for recruitment. In such cases, petty officials of local administrative organ and the police worked as recruiters. In the state of forced occupation, the employment opportunity was extremely limited, and the wage for Korean factory workers were very low, one fourth of the wage of Japanese male workers and half that of Japanese female workers. For Korean female workers, the wage was below the sustenance level.

The military comfort stations and the military comfort women system that the Japanese imperial government implemented at the time when Japan launched a massive warfare—the Manchu Invasion, the Sino-Japanese War, and the Pacific War, are closely connected to licensed prostitution and the extant structure of prostitution. The connection is obvious in that the basis for introducing the military comfort women system is closely linked with the purpose behind the creation of licensed prostitution, which also greatly influenced the guidelines of operation for the military comfort stations. Especially in time of war, there is a tendency for the duplication or incorporation of licensed prostitution into the military comfort women system. However, there is a difference between the two systems in that, in the case of the latter, both the government and the military are directly involved in the maintenance, management and operation of the military comfort stations.

The licensed prostitution was originally introduced in the Japanese settlement that was established when Choson opened its ports to Japan. With Choson as the battlefield for the Sino-Japanese War and the Russo-Japanese War, Japanese introduced brothels became common in Japanese settlements. Such brothels disseminated nationwide in Choson during the period

of forced Japanese occupation, affecting the lives of Choson people.

Human trafficking, fraud, and threat were the common causes that led most of Choson women into prostitution. Under the Japanese colonial rule, the government authorized trafficking of women by parents, husbands, and relatives, and this in turn legalized human trafficking. The government authorization of women trafficking encouraged fraudulent human trafficking. The plundering by Japan after its occupation of Choson led to the collapse of social and economic systems of Choson, turning many Choson women into prostitutes. Given these circumstances, towards the last days of Japanese colonial rule when the mobilization of military "comfort women," along with the control of prostitution, was carried out in full-scale in Choson, it is likely that the women already working as prostitutes were the first target for the mobilization.